사 설

새 종정 모신 조계종

조계종 제11대 종정에 도림 법전스님이 추대되었다. 전국의 불자는 물론 온 국민이 경하할 일이다. 인류의 스승이요 선각자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과 역대 조사의 법통을 계승하고 한국불교 1600여년의 법맥 상승을 상징하는 조계종의 종정은 국민과 종도들의 안심입명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종정의 자리는 존경스러운 것이기도 하지만 국민과 종도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는 책임도 있는 위치이다.

우선 종도들이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단 2차에 걸친 종정추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아 추대했다는 사실이다. 이제 종단이 안정되고 화합의 분위기 속에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며 종단의 안정이 불교발전을 가져 올 뿐만 아니라 국민안정과 국가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

법전스님은 '절구통 수좌'라는 별칭을 들을 정도로 피나는 참선수행을 한 모범 수좌로, 해인사의 주지와 총림 방장 그리고 종단의 최고원로 의결기관인 원로회의 의장까지 역임한, 종단의 화합과 발전에 염원을 다한 역군이며 대원력의 지도자이다.

새 종정스님이 지닌 검소함과 청정가풍, 높은 수행력이 스님들은 물론 모든 불자들의 귀감이 되어 조계종을 비롯해 전 종단에 청정수행 풍토가 확산되고, 스님의 덕화가 불교계에 두루 미쳐 불자들의 귀의처가 되어 불교교단의 위상이 이 사회에서 확고히 자리잡게 되기를 바란다.

또한 분규로 얼룩진 아픔을 씻고 안정 기조에 들어선 조계종이 새 종정스님 추대를 계기로 더욱 화합하고 발전된 모습을 보여 한국불교 중흥은 물론 이 사회를 밝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힘차게 분발해 주길 기대한다.

청년불교 활성화 대책마련을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에서 청년 증교의식 조사보고서인 〈청년포교의 현실과 지향〉이 발표되었다. 우선은 이러한 보고서가 나온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정확한 현실인식이야말로 올바른 대처를 위한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청년불교가 급격히 쇠퇴하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여러 가지 사항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대불청 지회수가 96년에 비해 반이나 줄고, 신규 회원의 충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청년회의 노령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것은 충격이다 못해 한국불교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수 없다.

청년회원 참여가 갈수록 저조한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분석해볼 수 있으나 사회참여 요구가 왕성한 청년들의 활동공간으로 종단이나 청년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청년들에게 적절한 위상과 권리, 소속 사찰이나 종단의 일에 일정한 역할을 부여하고 또 발언권을 주어야 한다. 지원도 제대로 안하면서 청년 불교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청년들이 흥미를 갖고 그 왕성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들에게 그 영역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함께 주는 것이 필요하다. 청년불자들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며, 그들이 적극적으로 앞장 설 무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야말로 청년포교의 첫걸음이다.

조계종과 대한불교청년회가 이 보고서를 근간으로 하여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조망 아래 청년포교가 새롭게 발흥될 수 있도록 활성화 대책마련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주 필 : 김병규
인 쇄 인 :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한마음으로 종단중흥 노력"

"모든 문제 대화 · 협력으로" 4개항 결의문 채택

태고종 대각정진대법회 성료

지난해 양쪽으로 나뉘어 1년여 동안 내홍을 겪은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이 종단 스님들이 대거 동참한 가운데 3월 29일 '태고종도 한마음 대각정진대법회'를 열고 화합과 종단 중흥을 위해 정진할 것을 결의했다.

일우, 혜초 스님 등 승정, 운산 총무원장, 운곡 종회의장 등 3원장과 각급 기관장, 전국 교구 종무원장 등 태고종의 지드자급 스님 5백여 명이 동참하여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대각정진법회는 승정추대장 봉정, 종단 간부임명장 수여, 종정 법어, 대회사, 기원사, 축사, 결의문 채택 등의 순으로 성대히 봉행됐다.

종정 덕암스님은 혜초스님이 대독한 법어에서 "종도 모두가 새 마음으로 지난 일을 자성의 기회로 삼아 쉼없이 사견을 경계하여 안으로는 부지런히 극념의 공을 닦고 밖으로는 부쟁(不諍)의 덕을 넓혀 후회없는 현도(玄道)의 길을 가야한다"고 설했다.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화합된 힘으로 침체된 종단을 중흥 발전시켜 대승교화종단으로서의 위상을 회복, 불교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하자"고 역설했다.

이날 참석 스님들은 △분규분쟁을 지양하고 종단의 모든 문제는 승가의 육화(六和)정신에 입각, 대화와 협력으로 푼다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각종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종단의 정체성을 확립, 호혜균등한 이상적 승가 공동체를 실현한다 △수행풍토를 조성하고 속불혜명(續佛慧命)의 법도와 기강을 확립, 종단 위상을 제고한다 △사회복지, 봉사, 경제정의실현, 인권, 환경, 남북교류 등 대사회 활동 적극 전개한다 등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운산 총무원장(앞줄 오른쪽) 등 태고종 간부스님 5백여 명은 3월2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화합과 종단 중흥에 노력할 것을 결의하는 대각정진 법회를 열었다.

교육 · 포교원 예산비중 높아져

조계종 통합종단 40년만에 처음

조계종은 기획실(실장 현고)은 3월27일 기자회견을 갖고 2545년도 중앙종무기관 결산내용을 브리핑했다.

브리핑에서 기획실은 "지난해 예결산 집행결과 통합종단 출범 이후 처음으로 총무원 운영비(44억2천여만원)보다 교육원 포교원 복지재단 운영비(60억원)지출이 많았다"며 "현재 종단운영이 교육 포교중심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분담금이 67.7% 인상되면서 각 본말사들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23개 교구 1300여 사찰이 분담하는 금액은 전체 분담금 의 20%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조계사 선본사 보문사 등 3개 직영사찰 분담금이 전체의 26%(40억원), 8개 특별분담사찰은 16.5%(25억 5천만원)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김원우 기자

불교시민 · 단체 프로그램 공모

조계종, 4월19일까지 접수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정대스님)이 불교계의 시민사회 단체들을 대상으로 2002년 불교 시민 · 사회단체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불교 시민사회단체 활동의 전문성과 활동 영역의 다양화, 불교 시민운동을 활성화를 위해 실시되는 '불교 시민 · 사회단체 공모사업'에는 총 5천여 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불교 시민사회단체 공모사업은 4월 19일까지 총무원 사회부에서 접수받으며, 공모사업 안내서 및 신청서를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한편, 조계종은 가을 경 2001년 공모사업 성과를 정리하여 발간할 자료집을 전국에 배포하여 불교 시민사회운동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방침이다. 문의는 사회부 02) 735 - 5864.

김원우 기자

중앙승가대 敎史전시실 5월 개관

학풍진작 · 단합 목적, 사료수집 착수

중앙승가대가 학교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교사(敎史)전시실'을 5월 개관한다.

중앙승가대는 3월25일 학교발전기획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사료(史料) 수집 및 전시실 구성안 마련 등 세부작업에 착수했다.

승가학풍 진작 및 학교 구성원의 단합을 목적으로 한 교사전시실은 본관 4층 강당의 양쪽 복도에 마련되며, 패널과 진열형태로 구성된다. 내용은 학교 연대사를 중심으로 △설립 및 성장기(79~88년) △도약기(89~95) △팽창기(96~2000) △김포학사와 승가교육의 질적 발전기(2001~2002)로 나누어지며, 패널은 주요사건이나 사안에 대한 사진으로 제작하고, 진열장에는 졸업장이나 학적부, 학교 물품 등을 전시하게 된다.

전시형태는 '도입부'와 '본전시'로 나뉘며, 도입부에서는 학교명칭, 마크, 교육실천 강령 등이 먼저 배치되고, 이어 '본전시'는 네 파트(성장기, 도약기, 팽창기, 질적 발전)로 나뉘어지며, 각 파트별 경계부분에 기둥을 세워 시각적인 구분을 할 방침이다.

특히 중앙승가대는 각 기수별 동문명단을 동판이나 타일로 붙이고 이후 졸업생들 명단도 붙일 공간을 확보하는 등 소속감을 높이는 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앙승가대는 교사전시실 개관 이후에도 계속 자료를 보완해 '교사'를 편찬할 방침이다.

한명우 기자

"종교 신문 적극지원"

박문석종무실장 밝혀

문화관광부 박문석 종무실장(사진)은 3월27일 현대불교 김병규 주필 등 10여명의,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 종교 신문 편집국장 초청 간담회에서 문화관광부 차원의 예산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신문사들의 개별 또는 연합 프로젝트에 대해 올해 3천여 만원까지 지원하고, 내년에는 더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현대' 만평

김 영 민

청년불자들 다 어디갔나?

제보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창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기사화되는 제보 가운데 불교발전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또한 지면제작과 관련한 문의나 투고, 의견개진은 물론 출판과 관련한 각종 제안도 환영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한국전문신문협회 윤리강령에 의거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제보전화 : 722-4162 FAX : 737-0698 인터넷 주소: buddhanews.com

통도사 적멸보궁
금 강 계 단

보살계 수계산림 대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불보종찰 통도사 적멸보궁 금강계단은 자장율사께서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가사를 모시고 전국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계율을 설하여 1357년간 전승해온 유일한 계율의 근본도량입니다.

금년도 통도사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산림 법회를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봉행하오니 불자님들께서는 두루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6년 4월 일

■ 일 시
• 입제일 : 2002년 4월 17일(음 3월 5일) 수요일
• 회향일 : 2002년 4월 19일(음 3월 7일) 금요일
■ 장 소 : 통도사 금강계단
■ 계 사 : 전계아사리 현산 영철 대화상
■ 동참금 : 5만원
■ 접수처 : 본사 기와 접수처 및 각 말사

▷ 연락처 부산포교당 (051)816-2241
마산포교당 정법사 (055)246-8393
창원포교당 구룡사 (055)255-6359
울산포교당 해남사 (052)211-3340
밀양 표충사 (055)352-1150
밀양 무봉사 (055)354-3296
창녕 포교당 (055)533-2295
서울포교당 구룡사 (02)575-7766
서울 보현사 (02)355-9815

교통편
◉ 통도사 버스 - 부산 : 온천장 지하철역 앞 08:00 ~ 9:00
울산 : 울산공설운동장(08:00) 공업 R(08:40) - 무거 R(08:50)
◉ 대 중 교 통 - 부산 : 노포동 시외버스, 고속터미널
울산 : 시외버스터미널, 대구 : 고속터미널 「부산행 일반고속」
서울 : 동서울고속터미널

대한불교 조계종 제15교구 본사 영축총림 통 도 사 전계사 현 산 대화상 주 지 현 문 합 장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번지 / ☎ (055)382-7182 FAX (055)382-7196